

스페인어 여격대명사(pronombres dativos) 활용에 관한 고찰

박 영 미
단독/대구가톨릭대학교

Park, Young-Mee(2003). Sobre los usos de los pronombres dativos en español. *Revista Iberoamericana*, 14, 43-62.

Este trabajo tiene por objeto demostrar los usos de los pronombres dativos en español. A diferencia de los acusativos los dativos se usan en distintas construcciones tanto en las transitivas como las intransitivas entre las cuales algunos verbos como los psicológicos necesitan la presencia obligatoria de los dativos. Los dativos se dividen en dos grupos según la naturaleza sintáctica: los argumentales y los no argumentales. En los dativos argumentales pertenecen los objetos indirectos de los transitivos, los experimentantes de los verbos psicológicos y los poseores inalienables, ya que éstos funcionan como argumentos del verbo, por ejemplo, la presencia obligatoria del clítico dativo de los verbos psicológicos se basa en su construcción argumental porque, como éstos carecen de los agentes en su red temática, precisan los experimentantes animados realizados morfológicamente dativo. En cambio, los dativos éticos se consideran como no argumentales dado que se insertan en la oración para dar énfasis a la acción o expresan simplemente el aspecto verbal. Semánticamente la presencia de los dativos está relacionada estrechamente con 'afectado', es decir, los objetos indirectos de la ditransitiva, los poseores inalienables y los experimentantes de los verbo psicológicos son elementos afectados por la acción del verbo.

Key Words: Pronombres dativos/ Objeto indirecto/ Dativo ético, 여격 대명사/ 간접목적어/ 심성여격

I. 서론

스페인어의 목적격 대명사 중 여격대명사는 대격대명사에 비해 매우 다양한 문장 형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격대명사가 대명사로 나타날 때와 명사구로 나타날 때 상보적 분포를 보이면서 그 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격대명사는 중복형을 허락하는 데 있어 대격대명사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또 특정한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여격대명사가 의무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등 더 복잡한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여격대명사가 나와서 문장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심리동사 구문은 ‘여격 대명사 + 심리동사 + 명사’의 구조는 스페인어에 특징적인 구문형태로서 한국어 화자인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 활용에 있어서도 일반 여격대명사와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일상회화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위 심성여격 구문 역시 독특한 문형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의 여격대명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문법적 특징을 비교하여 여격대명사의 용법에 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정 문법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지 않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성문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들을 도입할 것이다.

II. 스페인어 여격대명사의 용법 및 특성

1. 여격대명사의 용법

스페인어 여격대명사는 대격대명사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여동사라 칭하는 타동사 구문에서는 직접목적어 뿐 아니라 간접목적어도 함께 취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a. Le escribo una carta a María.
- b. Le entregó las llaves al conserje.
- c. Le regalé un ramo de flores a Carmen.

그러나 반드시 수여동사만 여격대명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타동사들도 여격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 (2) a. Le cociné el pollo a Juan/ Cociné el pollo para Juan.
 b. Les ataban las manos a los prisioneros/ Ataban las manos de los prisioneros.
 c. Le cortaron las uñas al niño/ Cortaron las uñas del niño.
 d. El mecánico le arregló el coche a Juan/ El mecánico arregló el coche de Juan.

상기 예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타동사 구문에서 para/de의 전치사구로 나타났던 명사구가 간접목적어가 되어 여격대명사로 나올 때 여격대명사의 중복형에는 전치사가 a로 통일되며 여격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격대명사는 대격대명사와 달리 자동사 구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여격대명사가 쓰이는 자동사는 순수한 의미의 자동사(verbo intransitivo propiamente dicho)가 아닌 비대격동사¹⁾로서 심리동사가 대표적이다.

- (3) a. Le duelen las piernas a Pedro.
 b. Le gusta el cine a Juan,

(1)-(3)에 나타난 세 가지 여격대명사들 중 유일하게 생략 가능한 것은 수여동사의 간접목적어로서 수취인(destinatario)의 의미역을 받지만 수혜자(beneficiario)나 경험자(experimentante) 그리고 비양도성 소유주(posesor inalienable)와 같은 의미역을 받을 경우는 여격대명사의 출현이 의무적이다(F. Soriano 1993:29, 1999:1250).

1) 문법에서 정의하는 비대격 동사(los inacusativos)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행위자가 없는 사건(eventos no agentivos: logro)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사(los intransitivos)와 구별된다. 외재 논항이 되는 행위자가 결여된 비대격 동사의 유일한 논항은 주제의 의미역을 가지며 주로 동사의 행위를 받거나 동사가 부여하는 사건성(eventualidad)이 표현된다. 스페인어의 비대격동사에는 llegar, florecer, crear 등이 있다.

2. 여격대명사의 특성

(1) 비강세 대명사 — 음운, 형태론적 특성

주격 인칭 대명사에 비해 여격, 대격대명사와 같은 대명사들을 문법에서는 접어(clíticos)²⁾라고 부르는데 강세를 수반하지 않는 음운론적 특성 때문에 항상 동사에 의존하는 부속 요소로 간주된다(RAE:424). 이러한 접어의 특징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접어를 동사 활용형(flexión verbal)과 비슷한 요소로 취급하게 하였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의 목적격 대명사는 비강세 인칭대명사로서 독립된 형태소로 나타날 수 없다.

- (4) a. ¿Quieres café o leche?
- Café.
- b. ¿Viene él o ella?
-Él.
- c. ¿Lo prefieres o la prefieres?
-*Lo.
- d. ¿A quién enviará Juan una postal?
-*Le
- e. ¿Vamos o vais?
-*Mos.

비강세 인칭대명사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단수, 복수 1, 2인칭에서 대격, 여격대명사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나(me, te, nos, os) 3인칭에서는 대격대명사와 여격대명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3인칭에서 대격대명사가 성, 수에 따라 lo, los, la, las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

2) 접어(clíticos)는 단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소로도 순수한 동사의 굴절소로도 특징짓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접사(afijos)가 어근에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만드는 반면 접어는 다른 단어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그 단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독립된 단어로도 기능을 한다.

면 여격대명사는 남, 여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le, les*를 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격과 여격대명사를 혼돈하여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léismo, loísmo, laísmo*의 명칭으로 불린다. *Léismo*는 남성 대격대명사 *lo*나 여성대격 대명사 *la* 대신 *le*를 쓰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이고 반대로 여격대명사 *le*를 써야 하는 경우 남성 대격대명사 *lo*를 대치하여 쓰는 용법을 *loísmo*라 하며 여성 대격대명사 *la*를 대치하는 경우를 *laísmo*라 한다. 그러나 한림원은 고상하고 문학적인 용법을 위해 남성 대격은 *lo*, 여성 대격은 *la*를 쓰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격의 경우, 사람을 나타낼 때 남성 대격은 *lo*보다 *le*를 쓰도록 한다(RAE:424).

한편, 재귀사 또한 문장에 따라 직접, 간접목적격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1, 2인칭에서는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목적격 대명사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3인칭의 경우 재귀대명사는 대격, 여격대명사와 다른 형태인 *se*를 취한다. 따라서 재귀사는 경우에 따라 대격으로도 여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5) a. Siempre me peino antes de salir.
 b. Juan se levanta a las siete de la mañana.
 c. Pedro se lava las manos.

일반적으로 타동사 구문에 재귀사가 쓰이면 그 문장의 동사는 자동사화된다. (5b)에서 *levantar*동사는 ‘...를 일으키다, 들다’의 뜻을 가지는데 재귀사가 쓰일 경우, 그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에게로 돌아오므로 *levantarse*는 ‘일어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재귀사가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타동사의 자동사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5c)에서 보듯이 *lavar*의 직접목적어는 *las manos*이며 이 문장에서 재귀사는 대격이라기 보다 여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3인칭에서 일반 목적격 대명사와 재귀사를 형태론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석의 중의성을 피할 수 있게 한다.³⁾

3) (5)의 예문에서 보듯이 1, 2인칭에서는 동사의 행위의 결과나 혜택이 다른 이가 아닌 ‘나에게’, ‘너에게’ 돌아가지만 3인칭의 경우, *le*를 사용했을 때 주어인 ‘그에게’인지

(2) 여격대명사와 피영향성([+afectado]) — 의미론적 특성

Gili Gaya(1964:70)가 분류한 동사 보충어(complemento)의 정의 따르면 여격으로 표현되는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의 결과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모든 여격대명사가 간접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⁴⁾ II.1.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격대명사들은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 구문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Campos(1999:1537)가 분류한 여격대명사는 동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선택된다.

(6) a. 수혜 및 수취 여격(dativo de recepción)

Le llevé varios regalos a Guillermo.

b. 이해 관계 여격(dativo de interés)

Le corté el césped a Maggie.

c. 분리 여격(dativo de separación)

Le robaron la bicicleta a Ana.

d. 충분 여격(dativo de suficiencia)

A Kiko le falta un millón de pesos para construirse la piscina.

e. 관계 여격(dativo de relación)

제3의 인물인 '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결속이론(Chomsky 1981)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 결속이론 A: 대용사는 자신의 지배범주 내에서 반드시 결속되어야한다.

(ii) 결속이론 B: 대명사는 자신의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서는 안된다.

(iii) 결속이론 C: R-표현은 어디서든 결속되어서 안된다.

즉, (5b)에서 재귀사 se를 사용한다면 이 재귀사는 주어인 Juan과 동지표되어 결속되어 결속이론 A를 만족시키지만 목적격 대명사 le가 주어인 Juan과 동지표된다면 결속이론 B를 어겨 비문이 된다. 즉 대명사는 자신의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면 안되므로 주어인 Juan과 동지표될 수 없다.

- 4) 여격으로 실현되는 모든 대명사가 간접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격대명사와 간접 목적어의 구분은 이미 라틴어에서도 존재했다. Bello(1847)는 간접 목적어(complemento indirecto)와 구분되는 나머지 여격대명사를 dativos superfluos라 명명했으며 Fernández Ramírez(1951)는 dativos objetivos와 dativos de interés로 구분했다. Ordóñez(1999:1906)에서 재인용.

A Choche le pareció buenísima la idea de Ximena.

f. 소유 여격(dativo de posesión o simpatético)

Le besé la mano a María.

g. 심성 여격(dativo ético)

Sé lo leyó de cabo a cabo.

Campos는 이들 여격대명사들 중 (6a, b, c, f)만이 간접 목적어가 된다고 한다. 즉 타동사, 자동사구문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문장 성분으로 볼 때 간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타동사 구문만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Demonte(1995)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어에서 이중 목적어(Doble Objeto) 구문에는 반드시 간접 목적어가 여격대명사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여격 대명사가 실현되지 않는 일반 타동사 구문과 비교해 볼 때, 여격 대명사는 “afectado”(피영향성)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간접목적어가 afectado의 해석을 받는 것은 이 요소가 직접 목적어인 주제(tema)가 되는 논항의 소유주(poseedor)이거나 그것(tema)의 고유한 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점(meta)이나 장소(locativo)를 나타내는 말이 상식적으로 직접목적어의 소유주로 이해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잠재적 소유주가 추상적이거나 정확히 언급된 경우가 아니면 여격대명사의 출현이 어색하다.⁵⁾ 아래에 제시한 예문이 그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다.

(7) a. Le puse el mantel a la mesa.

a' *Le puse los platos a la mesa.

5) Oehrle(1975)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afectado의 해석은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i) John taught Russian to Mary.

(ii) John taught Mary Russian.

두 문장은 모두 “John이 Mary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주었다”이지 “Mary가 러시아어를 배웠다”는 의미는 (ii)만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John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배운) 사람의 의미는 동사의 논항으로 생성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Demonte(1995)에서 재인용.

b. Le regalé un libro a cada uno de los asistentes.

b' (??Le) doné un libro a la biblioteca.

(Demonte 1995:12)

다음에 제시되는 예문도 간접목적어가 여격대명사로 실현되어 나오는 문장과 전치사구로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적 차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⁶⁾

(8) a. Mi madre le hizo un vestido a María, ??que le dio a mi hermana Pepa.

b. Mi madre hizo un vestido para María, que le dio a mi hermana Pepa.

(Ibid.)

(8a)의 예문이 어색한 것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의 수혜자는 마리아인데 Pepa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8b)의 문장은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옷을 지어주셨지만 결국 옷을 받은 사람은 Pepa가 되었으므로 (마리아에게 그 옷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여격대명사가 쓰여 수혜자의 의미는 Pepa만 가지고 있으므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afectado의 해석은 나머지 여격구문에도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6b)의 문장을 Corté el césped para Maggie와 비교해 볼 때, para Maggie라고 했을 경우, Maggie는 단순히 수혜자의 의미만을 가지지만 여격대명사 le를 쓰면 afectado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즉 para Maggie라고 했을 때는 내가 Maggie를 위해 잔디를 깎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Maggie가 여격대명사로 나올 경우 내가 Maggie를 위해 잔디를 깎아줌으로 해서 Maggie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다는 것까지 내포한다. 예를 들어, 여격 대명사를 사용하면 Le corté el césped a Maggie y se quedó más tranquila라는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Maggie가 집안 일로 바쁠 때, 내가 그녀를 위해 잔디를 깎아주어서

6) (i) John bought his wife a kimono, #but finally got it to his mistress.

(ii) John bought a kimono for his wife, but finally got it to his wife.

Maggie가 한결 차분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corté el césped para Maggie y se quedó más tranquila라고 한다면 Maggie가 차분해진 이유가 내가 잔디를 깎아 준 것 때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어색할 수밖에 없다.⁷⁾

(6c, f)의 분리여격, 소유여격 또한 여격대명사가 동사의 행위에 의한 피영향자임을 말해준다. Campos(1999)는 분리, 소유 여격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여격대명사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는 소유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trozer(1978)의 분류에 의하면 romper, destruir, encontrar, gastar, agotar 등의 동사는 여격대명사와 함께 쓰일 때 여격대명사가 소유사의 기능을 하므로 이 두 여격대명사는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 소유 여격이란 명칭은 라틴 문법학자들로부터 명명된 것으로 여격이 소유주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여격 대명사가 양도성 또는 비양도성 소유 대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므로 (6c, f)에서 여격 대명사 le는 su의 의미가 있다.⁸⁾ 그렇다면 일반 소유주 구문 (S-V-O(NP1 de NP2))과 여격대명사를 사용한 소유주 구 (S-Dat(NP2)-V-O(NP1))문과는 어떤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며 왜 각각 독립된 문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여격대명사 구문을 보면 여격대명사의 출현은 afectado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소유주 구문에서도 여격대명사가 쓰인 소유주 구문은 일반 소유주 구문에 비해 여격대명사가 소유주인 동시에 afectado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스페인 원어민들이 여격대명사를 이용한 외재 소유주 구문(Vergnaud & Zubizarreta 1992, 심상완 2002)은 단순히 동사의 행위만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 소유주가 긍정적,

7) (i) Les leí un libro a los niños y se quedaron dormidos.

(ii) ?? Leí un libro para los niños y se quedaron dormidos.

(Maldonado, 1994:250, Gutiérrez 1999:1888에서 재인용)

8) 물론 (6c)와 같은 문형에서 여격대명사가 모두 소유여격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Gutiérrez(1999:190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장난감의 소유주와 여격대명사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i) Andrés le rompió el juguete a Miguel. (el juguete es de Miguel)

(ii) Andrés le rompió el juguete de Pablo a Miguel. (el juguete no es de Miguel)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까지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⁹⁾

(6d, e)에 사용된 여격은 비인칭 동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라 할 수 있겠다. *faltar*, *parecer* 동사는 행위자(agente)가 결여된 동사로서 유일한 논항은 tema의 의미역을 받는 *inanimado*의 명사구 또는 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여격대명사가 쓰이면 이들 동사의 경험자의 의미역을 받게 된다. 경험자로 나오는 여격 또한 다른 여격대명사처럼 *afectado*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동사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경험자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격대명사 없이 *falta un millón de pesetas*, *parece buenísima la idea de Ximena*라고 한다면 누가 백만 페세타가 모자라고 누가 보기에 Ximena의 생각이 좋아 보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격대명사가 쓰이면 문장의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된다. (6)의 분류에는 없지만 이 동사들처럼 사람이 주격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여격으로 나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구문으로 *gustar* 동사도 같은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다룰 여격대명사는 심성여격 구문으로 심성여격은 동사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Mario fue al extranjero*와 *Mario se fue al extranjero*의 의미 차이를 비교하자면 전자는 “Mario는 외국으로 갔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엔 “Mario는 외국으로 가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동사의 행위를 더욱 강조하여 말할 때 쓰는 여격으로 완료적 상(*aspecto perfecto*)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Strozer 1976).

(3) 통사론적 특성

다음에서는 (6)에 열거된 여격대명사의 의미적 분류를 구문별로 1) 타동사의 간접목적어, 2) 심리동사의 여격 주어, 3) 심성여격구문 세 가지로 나누어 통사론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격대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타동사의 간접목적어와 심리동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9) 외재 소유주 여격구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심상완(2002)를 참조하시오.

하는 여격대명사는 모두 동사의 논항으로 선택되는 요소이므로 논항 여격대명사(dativo argumental)라 칭하고 심성여격구문에 나타나는 여격대명사는 동사가 논항으로 취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비논항 여격대명사라(dativo inargumental)고 칭한다.

1) 논항 여격대명사

스페인어가 가지는 통사적 특성 중 하나로 주어 생략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문법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언어를 pro-drop어 또는 영주어 언어라고 명명하는데 pro-drop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동사의 풍부한 굴절 요소로 생략된 주어를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인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동사의 굴절에는 인칭, 성, 수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류로 간주되는 일치자질(Concordancia)이 동사에 접사화되어 나타나므로 주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

한편, Rizzi(1986)는¹⁰⁾ 이태리어 자료를 통하여 영주어가 가능한 언어에는 목적어 또한 영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만일 동사에 접사화된 일치요소가 영주어 pro를 복원할 수 있는 요소라면 영목적어인 pro 또한 문장 내의 어떤 요소에 의해 복원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나 목적어 모두 동사의 의미역 구조에 필요한 논항들이기 때문이다. 영주어가 동사의 일치소에 의해 복원된다면 영목적어는 접어들에 의해 복원된다고 하겠다. Rizzi가 제시한 예문을 보자.

10) Zubizarreta(1982), Suñer(1982), Otero(1986)과 같은 학자들은 접어와 연관된 영범주를 pro라고 보며 pro-drop언어에서 접어는 목적어 위치의 pro를 허가해준다고 주장한다. 아래 예문은 Rizzi(1986)가 제안한 영목적어가 나오는 이태리어 문장을 스페인어로 옮긴 것이다.

- (i) Esto conduce **pro** a [PRO concluir lo siguiente].
- (ii) La buena música reconcilia **pro** con uno mismo.
- (iii) Esta música pone [**pro** alegre].

영목적어 pro는 영주어와 마찬가지로 PRO를 통제하며(i), 대용사를 결속할 수 있고(ii), 소절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iii). (Mendikoexea 1993:213)

(9) [_{SN} e_i] te_j conozco_i [_{SN} e_j]

(9)에서 지표 (i, j)가 지시하는 것처럼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영 주어는 동사 굴절소가 허가해주며 영목적어는 접어가 나타나 허가해 주고 있다. 간접목적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도 여격대명사가 나타나 영요소인 간접목적어를 허가해 준다.¹¹⁾

- (10) a. Dio un libro a María.
 b. Le dio un libro.
 c. Se lo dio.

(10)의 예문은 주어, 직접, 간접목적어가 모두 영요소로 실현되었지만 이들을 허가해주는 동사의 굴절소, 여격, 대격대명사로 인해 생략된 주어, 목적어의 실체를 알 수 있다.

① 타동사의 목적어

수여동사라고 알려진 영어의 give 동사, 스페인어의 dar동사는 두 개의 보충어(목적어)를 선택할 수 있다.¹²⁾ 전형적인 타동사 구조를 취하는 이 동사들은 간접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나타낼 때 주로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V NP1 PP(P+NP2)]의 구조를 취한다. 스페인어에서는 주로 전치사 a를 사용하여 나타난다.¹³⁾

11) 대격 대명사와 달리 여격 대명사는 clitic 중복이 자유롭다. 따라서 (10b)에 중복 요소 a María가 나타나도 문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여격 대명사로 나타난 요소와 동일한 NP가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여격 대명사가 영간접목적어를 대신한다는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중복요소는 redundante한 것이다. (Fernández S. 1999:1246-1247)

12) 그 외에도 entregar, dirigir, mandar, escribir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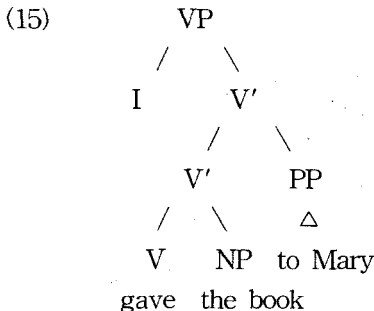
13) Gili Gaya(1964:70)가 분류한 보충어(complemento)의 정의에 의하면 간접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의 결과나 효과를 받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라틴어에서는 간접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여격으로 격변화했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전치사 a 또는 para를 사용하여 나타난다.

- (11) a. I gave a book to John.
 b. Di un libro a Juan.

한편, 영어에서 [to John]의 전치사구로 나타난 간접목적어는 직접목적어에 선행하여 동사에 인접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기본 구조로 [V NP2 NP1]를 취한다. 스페인어는 원칙적으로 이중 목적어 구조를 허락하지 않지만 영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과 비슷한 문형을 찾아 볼 수 있다(Demonte 1995). 단, 영어와는 달리 간접목적어는 반드시 대명사의 형태로 나타나야한다.¹⁴⁾

- (12) a. I gave John a book.
 b. I gave him a book.
 (13) a. Le di un libro (a Juan).
 b. *Di Juan un libro.

간접목적어가 전치사구로 나타날 때 타동사는 동사구내에서 직접목적어만 자신의 논항으로 취하며 간접목적어는 전치사로부터 착점(goal) 또는 수취인(destinatario)의 의미를 받고 동사의 논항으로 나타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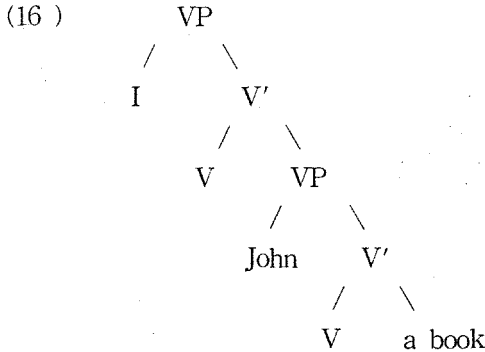


14) 스페인어도 간접목적어가 일반 명사로 나타날 때 영어와 동일한 어순을 보일 수 있다.

(i) Di a Juan un libro.

그러나 이 문장은 수여자인 Juan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가므로 일반적인 dar 동사의 어순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Larson(1988)은 (16)의 예문에서 보듯이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에 선행할 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15)의 일반 타동사 구문과 차이를 보이는 점에 착안 다음과 같은 이중목적어구문(Construcción de Doble Objeto)을 제안한다.



이중목적어 구조에서는 일반 타동사 구문과 달리 동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간접목적어 John의 의미역(papel temático)은 전치사 to 아닌 V'에 의해 할당된다(Larson, 1988). to가 의미역 할당자인 동시에 격표지자라면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는 John이 전치사를 동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당연하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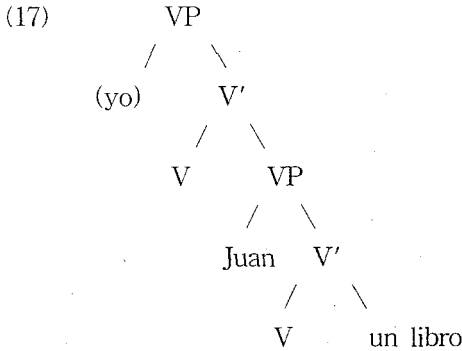
(16)의 이중목적어 구조를 스페인어에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15) GB이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격여과라는 장치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i) 격여과(Filtro de Caso: Chomsky, 1981)

모든 어휘적 명사구는 격을 할당받아야 한다.

(16)의 경우 만일 John이 전치사를 동반한다면 John은 격할당자인 전치사 to와 동사로부터 각각 격을 받게 되므로 두 개의 격이 할당된다. 두 개의 격을 가진 명사구는 (i)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yo) di Juan un libro’는 비문이며 이 문장이 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간접목적어 Juan에 전치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직접목적어가 동사구 내에서 dar의 논항으로 생성될 경우, 영어와 마찬가지로 격여과를 어기지 않기 위해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아야겠지만 오히려 전치사를 요한다는 사실은 스페인어에서는 이중목적어구조가 배제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¹⁶⁾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17)의 구조에 간접목적어가 일반 명사구가 아닌 여격대명사로 나타날 때는 이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Demonte(1995)는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ditransitivo 구문의 교호성(alternancia)을 스페인어에서도 적용시킨다. 즉 Di un libro a Juan은 영어의 ditransitivo 구문과 일치하는 것이며 여격대명사가 실현된 Le di un libro a Juan은 이중목적어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했다.

② 심리동사의 의미상 주어

RAE(1973:377)의 정의에 따라 직접목적어의 선택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때, 직접목적어는 자동사구문에 나타날 수 없지만 간접목

16) 이 점을 놓고 혹자는 스페인어 전치사 a의 용법 중 허사와 같은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목적어 앞에 사용된 전치사는 생략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람이 직접목적어인 경우에 사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람 animado]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a와는 다른 것이다.

적어는 가능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스페인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모든 자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동사에 한정되며 기본 구조는 여격대명사 + 동사 + 주어 순이다. 자동사 구문 중에서도 *gustar*와 *doler*와 같은 심리동사와 여격대명사의 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gustar*와 *doler*를 심리동사라 명명함은 일반적으로 동사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경험자라고 하는 대상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¹⁷⁾ 심리동사들은 경험자를 반드시 여격대명사를 취해야 하는 동사이다. 만일 간접목적어 구문에서와 같이 여격대명사를 생략하고 a-NP를 쓴다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렇다면 *dar*동사와 같은 수여 동사들과 달리 심리동사구문에서는 왜 여격대명사가 의무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하는지 알아보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는 문장을 스페인어로 작문할 때 *gustar*동사의 용법을 모른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Yo gusto las manzanas”로 나타내거나 영어에서 쓰이는 타동사 *like*에 준하는 *querer* 동사를 쓰게 된다. 그러나 *gustar*동사는 사과를 좋아하는 주체인 사람에 따른 인칭 변화를 하지 않는다. 또한 *querer*를 쓰게 되면 사과를 좋아한다는 화자의 기호(*gusto*)를 나타내기보다 사과를 먹고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다음에 나타나는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 (18) a. I like an apple.
b. Me gustan las manzanas.

17) 전통문법에서는 이러한 심리동사를 유사-비인칭동사(pseudo- impersonal)로 분류하고 있다. 심리동사가 유사 비인칭동사로 간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사의 행위에 대한 행위자가 없다는 점이다. Alcina & Blecua(1975:895)는 이들 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사적 특징을 들고 있다.

- (i) a. 사물 주어(sujeto inanimado)가 동사에 일치한다.
b. 행위자가 없다.
c. 사람은 여격대명사로 나타나진다.

사물 주어를 취하는 심리동사의 특징은 이 동사가 주어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심리동사의 주어로는 명사구, 동사원형, 절 모두 가능하다. 여격대명사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며 a+NP의 중복형이 가능하다. 이 동사의 무표적 어순은 OVS이며 중복형이 문두에 나올 경우, 문자의 주제(*tópico o tema*)의 위치에 온다.

(1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와 영어가 전형적인 타동사구문을 취하는 것에 비해 스페인어는 자동사 구문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어 문장에서 화자는 주격으로 실현되지 않고 여격으로 실현된다.

Doler 동사의 활용에 있어서도 똑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 a. *Yo duleo la cabeza.

b. Me dulele la cabeza.

이와 같은 오류의 원인은 이들 심리동사의 우리말 해석에서 좋아하고 아픈 주체인 사람이 주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doler는 사람을 주어로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아픔을 주는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스페인어의 심리동사구문에서는 여격대명사가 의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심리동사의 의미역구조 상 반드시 두 개의 논항을 취한다는 결론을 2.(3).1.①에서 본 이 중 목적어 분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겠다. 이 중 목적어 분석에 의하면 타동사구문에서 간접목적어가 동사의 내재 논항일 경우 여격대명사의 출현은 의무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심리동사의 의무적 여격대명사 출현도 이 동사의 의미역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동사구문에서 간접목적어가 동사의 내재논항으로 생성될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구 내에서 논항 위치에 접어의 형태로 나와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동사의 경험자는 동사구 외에 전치사구로서 부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사의 내재 논항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동사구내에서 접어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비논항 접어(dativo no argumental)

대격, 여격대명사들이 논항을 허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격대명사의 경우 반드시 논항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다. 소위 심성여격(dativo ético)이라고 명명하는 여격대명사들은 단순히 화용론적 기능으로 문장 내에 삽입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0) a. Me voy al cine.
 b. Te vas de este país.
 c. Juan me le arruinó la vida a esa chica.
 d. Te me ensuciaste el pantalón, mi hijo.

상기 예문에서 여격대명사를 생략하더라도 이들 문장의 문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예문 (20a, b)의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고 예문 (20c, d)에 쓰인 동사도 간접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 동사들과 여격대명사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여격대명사가 통사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기 보다 여격대명사가 있음으로 해서 동사의 행위가 더 강조되거나 상적 차이를 말해주며 어떤 식으로든 여격으로 나타난 대명사에게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녀의 삶을 파괴시킨 일은 나의 심경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Jaeggli, 1986). 따라서 이들 심성여격은 동사의 논항으로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심성여격이 동사의 논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여격대명사들과 달리 중복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1) a. Me voy de aquí.
 b. *A mí me voy de aquí.
 c. *Se me casó a mí con otro.

Alcina & Blecua(1975)는 심성여격의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두고 심성여격을 일종의 허사(expletivo)로 보았다. 따라서 심성여격은 통사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동사의 행위와 깊이 연관되어 상적, 심리적 영향만을 나타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스페인어 여격대명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여격대명사의 출현은 의미적으로 피영향성(afectado)과 깊은 연관이 있다.
- 2) 타동사가 이중 목적어 구문을 형성할 때 간접목적어는 동사구 내에서 반드시 여격대명사의 형태로 나타나야한다.
- 3) 'NP1 de NP2'의 소유구문에서 소유주가 afectado의 의미를 내포할 때는 여격 대명사를 사용한 외재 소유주 구문으로 나타난다.
- 4) 여격대명사는 대격대명사와 달리 자동사 구문에도 쓰이는데 특히 심리동사 gustar나 doler의 경우 이들 동사는 의미역 구조상 반드시 경험자의 논항을 필요로 하므로 여격 대명사의 출현이 의무적이다.
- 5) 심성여격의 경우, 여격 대명사는 통사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표현상의 강조나 상적, 심리적 영향만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여격대명사의 활용에 관하여 의미적, 통사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문법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그러나 스페인어 여격대명사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본고에서 다룬 용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며 그 의미 또한 복잡하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손성태(1997), "Dativo en español", 『서어서문연구』, 11, 105-120.
- 심상완(2002), "외재적 소유주 구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어서문연구』, 22, 103-132.
- Alarcos Llorach, E.(1970),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 Alcina, J. & J. Blecua(1975), *Gramática española*, Ariel, Barcelona.
- Belletti, A. y L. Rizzi(1987), "Los verbos psicológicos y la teoría temática", en V. Demonte y M. Fernández Lagunilla (eds.): *Sintaxis de las lenguas románicas*, Madrid, El arquero, 60-122.

- Bello, A.(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1988), Madrid, Arco Libros.
- Campos, H.(1999), Transitividad e intransitividad, en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Bosque & V. Demonte (eds.), Madrid, Espasa, 1519-1574.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_____(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Y., Praeger.
- Demonte, V.(1995), Dative alternation in Spanish, *Probus*, 7, 5-30.
- Fernández Soriano, O.(1993), *Los pronombres átonos*, Madrid, Taurus, 13-62.
_____(1999), El pronombre personal. Formas y distribuciones. pronombres átonos y tónicos, en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Bosque & V. Demonte (eds.), Madrid, Espasa, 1209-1274.
- Gili Gaya, S.(1964),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9ª ed., Barcelona.
- Gutiérrez, O.(1999), Los dativos, en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Bosque & V. Demonte (eds.), Madrid, Espasa, 1855-1930.
- Larson, R.(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Mendikoexea, A.(1993), Los clíticos como categorías subléxicas de concordancia, en *Los pronombre átonos*, O. Fernández Soriano (ed.), Madrid, Taurus, 205-230.
- RAE.(1973), *Esbozo de un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박영미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전화번호: 011-9364-5997

E-mail: pymteresa@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3년 9월 31일

심사완료일: 2003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03년 12월 15일